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대-예수대-전주비전대, 글로벌대학 공동 신청

‘통합’ 기치로 새 활로 찾는다

전주대학교, 예수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가 ‘통합’을 전제로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10개 대학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30개 대학을 글로벌대학으로 지정. 대학당 연간 200여억원 등 총 1,000억원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이에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세 대학이 ‘통합’이라는 전제조건을 기치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글로벌대학30’ 사업 예비 지정 신청을 하루 앞둔 30일 오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데이저홀에서 세 대학의 총장은 글로벌대학 공동신청 기자회견을 열어 담대한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명품 글로벌대학으로의 여정을 함께하기로 선언했다.

이는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신학협력 허브 구축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교육 플랫폼 구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전주대학교는 입학정원 2,512명에 재학생 1만5,288명이, 예수대학교는 입학정원 1,137명에 재학생 4,939명이, 전주비전대학교는 입학정원 1,079명에 재학생 3,061명이 재학중이다. 이에 3개 대학이 글로벌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총 입학정원이 3,700명에 재학생 1만4,082명이 되는 매머드급 지역거점 대형 기독교 사립대학이 출범하게 된다.

이날 열린 공동 기자회견은 대학·지역·산업의 동반 성장, 상생발전을 위한 과감하고 담대한 혁신의 뜻을 울리자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글로벌대학 추진 세부 방안으로는 △세 대학의 정체성 및 강점 확대 △유연한 학사 구조를 갖춰 교육과 현장의 미스매치를 줄이는 과감한 혁신 추진 △간호·보건 인력 분야와 현장 전문 실무인력 양성 이외에 전주대학교가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 분야 중점 육성 △지자체와 연대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고, 유학생의 정주화 및 평생교육 사업 확산 공동 노력 △기독교 윤리와 인성교육을 토대로 지역 우수 인재 양성 등이 있다.

세 대학은 기독교 정신의 구현이라



박진배 전주대학교 총장(사건 가운데), 김찬기 예수대학교 총장, 우병훈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이 30일 오전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 데이저홀에서 글로벌대학 공동신청 기자회견을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학·지역·산업의 동반성장, 상생발전에 뜻 모아

박진배 전주대 총장 등 세 대학 총장들 “담대한 혁신으로

지속 가능 명품 글로벌대학으로의 여정 함께 할 것” 선언

정체성·강점 확대, 글로벌 성장 전략분야 육성 등 추진

는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세워진 종립 대학으로 학교법인 신동아회원과 학교법인 예수대학교가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방향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대학 공동 신청을 4년제 종합사립대학, 4년제 간호인력 양성대학, 2~3년제 지역특화 전문기술 인력 양성대학이 뜻을 모으겠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에 따른 시너지 또한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은 글로벌대학을 위한 대학 특성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3개 대학의 브랜드

및 경쟁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 대학 총장은 “3개 대학이 보유한 각각의 특성과 역량을 하나로 묶어 넣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독보적인 위상과 경쟁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명품 글로벌대학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대학교, 예수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는 ‘글로벌대학30’ 공동 신청을 계기로 기독교 정체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온 역량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정은성 기자

30년 이상 외길 경영

‘전북천년명가’ 선정

일신·라복임플로체·영흥관·만성한정식

동방상회·미락 도시락 출장뷔페 등 6곳

인증현판 제공·경영지원금 지급 등 혜택

전북도는 전통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북천년명가(全北千年名家) 6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천년명가는 30년 이상 한 길 경영을 하고 있거나 사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0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업체는 △일신(농·축산 방역과 관련된 다양한 방역 시스템과 아이템 운영, 전주), △라복임플로체(생활을 이용한 다양한 상품·컨텐츠 제공, 군산), △영흥관(물찌장의 원조 종식당, 전주), △만성한정식(2대에 걸쳐 전주 전통음식 계승, 전주), △동방상회(50년을 이어온 참기름 명가, 전주), △미락 도시락 출장뷔페(고객들의 연령대와 입맛을

고려한 음식 제공, 정음) 등이다. 이들 업체는 서류심사,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 총 3차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평판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았다.

최종 선정된 업체에는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북천년명가 인증현판을 제공한다. 또 경영지원금 최대 2,000만원, TV 방송 홍보, 전문 멘토링 지도, 이차보전 연계 특례보증 대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윤동욱 전북도 기업유지지원실장은 “천년명가는 도내 성장잠재력이 있는 30년 전통의 명가를 육성하는 사업”이라며, “전북천년명가 선정업체가 존속·성장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들 업체의 노하우 등을 전수해 성공모델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대학 등과 협치... 이차전지 인력 양성 ‘박차’

도, 난양공대 등과 거버넌스 체계 갖춰... 연관 기관 확대

전북대·군산대·전주대 등 도내 6개 대학과 협의체 구성

전북도는 최근 새만금에 집중되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 투자유치 기업의 인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내외 우수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도는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력의 충분한 공급이 특화단지 성공의 중요한 열쇠라는 판단에서다.

이차전지 산업은 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여부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능하게 때문에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할 수 있는 우수한 핵심 인력 확보가 최우선과제다. 또한 생산 현장에서는 관련 분야의 기초이론과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하고 공정 기술

을 갖춘 현장 인력 확보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전북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을 양성·공급할 수 있도록 난양공대(싱가포르), 도교공대(일본),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최고 수준의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과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 지속적으론 연관 기관들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공정 기술을 갖춘 현장 인력 양성을 위해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전주대학교 등 도내 6개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배터리학과 신설과 교육과정 확대, 국내외 우수대학과 연계

한 공유대학(원) 설립 등 매년 1,300여명 이상의 핵심 인력과 현장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또 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에 들어서는 기업의 현장 인력 수요를 향후 5년간 4,000여명 정도로 파악했다. 이에 공장 가동 시기에 맞춰 적기에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핵심 인력, △제조공정 인력, △현장 인력으로 구분해 8개의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 인력과 현장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전북도에서 보유한 교육 기반에 더해 국내외의 우수한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제10회 전국 품바 명인전

전북유일의 항구도시 군산!

국내 최대의 산업단지 군산!

군산새만금 신항은

당연히!

군산!



군산시의회